

[ 바 둑 ]

# 이창호, 2년 연속 광주 KIXX 주장

## 2008 한국바둑리그 참가 8개팀 선수 드래프트 마쳐 광주팀, 박정상·조훈현 등 앞세워 2년만에 정상 도전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에 출전하는 광주팀(광주 KIXX)이 이창호 9단과 송태곤 8단 등을 선수로 선발했다. 우승 상금 2억7천만원(전체 대회 운영비 35억원)을 걸고 8개 지역팀이 자웅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광주팀은 2년만에 정상 탈환을 노린다.

한국기원은 28일 “지난 26일 한국기원에서 8개 팀의 감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드래프트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는 보호선수 이창호, 자율 지명선수 송태곤 8단을 지명하는데 이어 드래프트를 통해 박정상, 조훈현, 김대희, 이성재를 추가로 지명했다. 보호선수만 매년 선수들이 바뀌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랭킹 28위 이내에서 전년도 소속 선수 6명 중 2명을 우선 지명하는 방식이다. 또 자율 지명선수는 29위 이하 프로기사들을 대상으로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1명씩 선발하는 제도다.

광주는 승리 보증 수표인 이창호를 지명해 대회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는 4월30일 응씨배 본선에 진출하는 송태곤은 지난 2006년 제1기 기성전과 제2기 원익배 십단전 4강에 진출하는 등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다.

또 조훈현은 팀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훈현은 전관왕 3회(1980년 9관왕, 1982년 10관왕, 1986년 11관왕), 최우수기사 통산 8회(1978~1983년 6년 연속, 1989년, 1994년), 1994년 세계대회 사이클링 히트(1990년 응씨배, 1994년 후지쯔배, 동양

증권배 우승), 1천승(1995년)을 기록한 국내 대표 프로기사다.

보호선수 지명에서 지난해 우승팀 영남일보는 허영호 6단, 신성건설이 목진석 9단, 울산 디아제는 강동은 7단, 제일화재는 이세돌 9단, 한게임 운소진 4단, 월드 메르디앙은 박정환 2단을 각각 뽑았다.

영남일보가 굳이 5라운드 지명자인 허영호를 선택한 것은 하위 순번이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던 허 6단을 묶어뒀 상위 지명자들과 전력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3년 연속 영남일보에 뽑힌 허영호는 지명을 통해 한 팀에서 가장 오래 된 선수가 되었다.

월드메르디앙도 3라운드의 윤준상과 6라운드의 박정환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하위 순번이지만 신예강자인 박정환을 택했다.

제일화재는 비씨카드배 준우승자인 김승재 초단, 월드 메르디앙은 박승화 2단, 울산디아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의 각 팀 선수들이 확정됐다. 광주는 이창호 9단과 송태곤 8단 등을 지명했다. 각 팀의 드래프트에 참여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바둑리그 예선전 모습.

(사이버 오로 제공)

체가 최원웅 5단, 영남일보 김형우 2단, 티브로드 최명훈 9단, 한게임 김성룡 9단, 신성건설이 윤찬희 2단을 각각 자율선수로 지명했다. 이로써 김형우, 김성룡, 윤찬희는 지난해

소속팀에서 계속 뒀 수 있게 됐다. 한국리그 원년멤버였던 최명훈은 티브로드의 서봉수감독에게 지명돼 5년 만에 꿈의 무대에 진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5판 다승제 도입·이복 5도 연고팀 첫 참가 2008 한국바둑리그 새 단장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가 새롭게 단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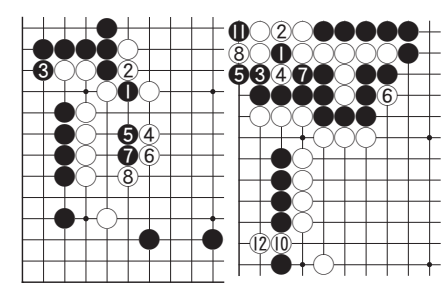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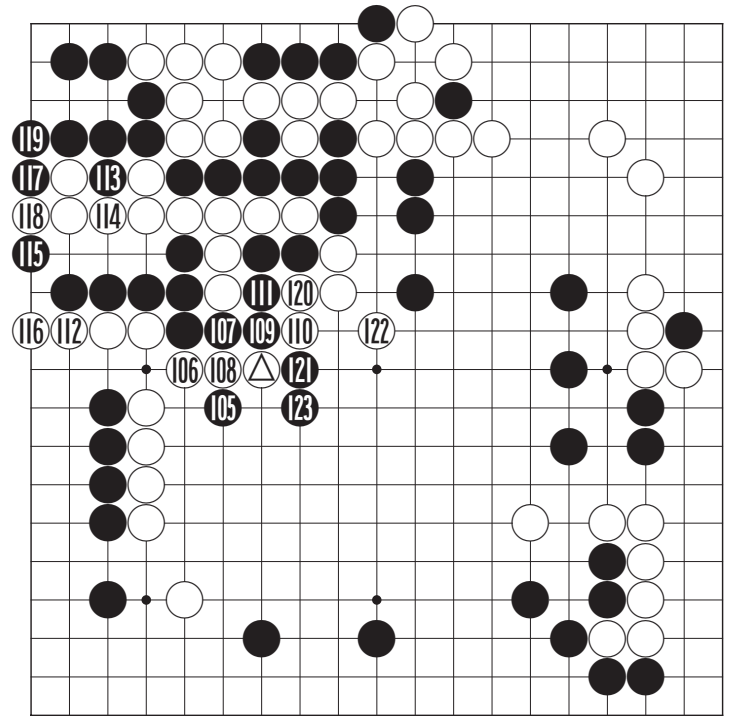
가장 큰 변화는 5판다승제. 지난해에는 5판3선승제를 해서 자칫 대국이 3대1이나 3대1이 되면 나머지 대국이 취소되는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부터는 5판다승제를 도입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팀 순위는 승률, 개인승수, 승자승의 순서로 따지기로 했다.

또 제한시간이 긴 대국과 짧은 대국이 함께 진행된다. 5판 가운데 한 판은 제한시간 1시간30분, 30초 초읽기 5회로 치러지며, 나머지 4판은 제한시간 없이 30초 초읽기 10회의 초속기 대국으로 펼쳐진다.

또 출전 팀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지난 대회 8위에 머물렀던 대방 노블랜드가 빠지면서 티브로드가 새로운 8구단으로 참여했다.

신생팀 티브로드는 서봉수 감독을 영입한 뒤 연고지를 이복5도로 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리그는 홈앤드웨이 방식으로 지방투어를 하기 때문. 과연 티브로드가 어디에서 경기를 치를지가 관심사다. 금강산, 개성, 백두산 등지에서 대국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광주바둑협회 연구생 리그전  
8보(105~123)  
白 김지수 (문성중 2)    黑 임지성 5단 (동일전자공고 2)



〈참고도 1〉     〈참고도 2〉

백으로 탈출해서는 백 필승의 국면이 되었다. 그래도 임지성군은 흑 105로 가르며 유일한 백의 엷음을 추궁해간다. 여기에서 빼앗긴다 다시 진흥탕 싸움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김지수군이 백 106으로 응수한 것이 호수다, 흑의 바둑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임지성군은 눈물을 머금고 흑 107로 후퇴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끊고 싶으나 그러면 백 2가 선수로 8가지 흑이 잡혀버리고 만다. 흑 109로 나와 백이 곤란한가 했으나 김지수군은 백 110으로 막는 강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백 120까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비인대 이 결과는 좌변의 흑집만 줄어들어 흑의 실패다. 수순중 흑 13으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끼우는 수가 있으나 8까지 천지대패가 나면 만패불침을 해야 하는데 백 10의 팻감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흑이 완판이다. 흑 123으로 늘어 마지막 대외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한·중·일 천하쟁패 만화 '바둑 삼국지' 나왔다

고수 위한 문제집 형식의 '최상위 1% 1, 2, 3' 도 출간돼

최근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서적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초보자들이 쉽게 바둑을 이해할 수 있는 만화와 고수들을 위한 문제집 형식의 전문 서적이 출판된 것. 한·중·일 삼국의 바둑을 다룬 만화 단행본이 나왔다.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과판닷컴에 연재했던 김종서씨 원작의 '바둑 삼국지 1, 2'는 지난 1988년에 열린 제1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를 무대로 하고 있다. 주인공은 응씨배에 출전한 조훈현 9단. 조훈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중·일이 겨루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중국의 위·촉·오가 천하를 놓고 다투는 삼국지를 빗대 풀어냈다.

응씨배는 대만의 부호 임창지씨가 창설한 바둑 월드컵이다. 4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걸고 세계의 고수들이 맞붙는 대회이다. 1988년 첫 대회에 총 16명의 선수 중 중국(대만포함) 7명, 일본 6명의 기사들이 초청했으나 한국에는 겨우 한 장의 초대권만을 보냈다. 한국은 조훈현 9단 홀로 출전하게 된다. 응씨배 4강은 조훈현과 중국의 자존심이자 바둑영웅 네웨이핑, 일본의 린하이핑, 슈코로 압축된다. 바둑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부록으로 기초 강좌와 바둑용어를 수록해 이해를 돕는다. 또 다양한

사진을 곁들였고, 흥미로운 바둑계 일화도 함께 담았다. <랜덤북 우스코리아·각권 8천500원> 아바 강자들을 위한 '최상위 1% 1, 2, 3'은 바둑 고수들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집이다. 김성래 4단이 문제를 내고, 해설을 달았다. 문제를 풀면서 부분 사할이나 맥정 구사 능력 등 고급 기술을 충실히 다질 수 있는 책이다. 집전의 기술, 중반전의 요령 등을 포함시켜 종합 전술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취약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밀도 높은 문제들로 꾸며졌다. <오로미디어·각권 8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구리 9단,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구리 9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 구리 9단은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좋아했는데 2001년에 우리 나라가 주최하게 됐다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는 4만여명이 참여하며, 공개선발과 각 기관과 조직의 내부 추천으로 선발됐다. 당초 바둑계에서는 삼성화재 배에서 이창호 9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휘시허 9단이 거론되었으나 휘시허가 사양하면서 구리 9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줍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NIE 국제약품**  
http://www.kuni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습**  
- 국제약품, 천진·수업·경북·영남·영호대·영호대·기대사·순천사  
- 유제 스킨케어 관련, 약품  
- 생리, 다이어트, 피부 관리, 스포츠스포츠, 운동 관련 관련  
- 피부염, 비염, 비염  
- 항산화물질, 일,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연의 보급**  
\*사립병원협회(사립) 02-7700-5000